대전주보

2021년 사목지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모두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2020.11.29~2021.11.27

발행 유흥식(제2639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4 · 270 · 3000 **팩스** 044 · 270 · 3043
주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당진성당 산성리공소 충청남도 당진시 회천로 (정미면 산성리 317-1)

연중 제18주일 2021년 8월 1일(나해)

제1독서 탈출 16,2-4.12-15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에페 4,17.20-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요한 6,24-35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백신 나눔 운동

계 좌
하나은행 633-910012-801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문 의
(042)635-5111 / (044)270-3002

백신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1년 사랑의 온도현황
39.5℃

2021년 총 모금액 395,726,591원
7.12~15 모금액 8,144,780원
본당 2,102,780원
단체 및 개인 6,042,000원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8월 2일(월)~7일(토) 오전 6시 50분 웅천 주임 임종택 신부 편

말씀의 향기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는 방법,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염선율 임마누엘
천안신방동 보좌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심하면 환멸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서로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잘못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빵을 청하는 군중은, 마치 1독서에서 먹을 것을 달라 불평하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군중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 자신을 배불릴 수 있는 빵을 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시며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제 군중은 예수님이라는 표징을 통해, 단순히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 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먹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2독서에서 말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맏이이신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듯, 사람은 본래 사람의 양식으로 자라나, 누군가의 양식이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받고, 또 주는 것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본모습입니다. 성부 · 성자 · 성령, 삼위(三位) 하느님께서는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관계로 일체(一體)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관계 안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먹히는 양식이 될 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모든 욕구의 해소, ‘구원’을 체험합니다.

물론 하느님과 온전히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순례하는 동안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자신을 양식으로 주기보다 다른 이들을 양식으로 삼아 배를 불리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 재화를 모으는 데 혈안(血眼)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항상 내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0.42).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양식이 되고 먹혀서 하나가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언뜻 올바른 관계는 양쪽 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하느님 안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건강해집니다. ‘하느님의 빵’으로 거듭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나’라는 음식이,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맛이 나도록, 성체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님을 깊이 맛보고 체험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입에 확 당기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많이는 찾지 않더라도,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생명의 빵’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924)
유판식 토마스

그래도 나는 채식주의자

나는 1988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고기'라 함은 무릇 명절 때나 아버지 생신 때에 국에나 넣어 먹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헌데, 요즈음에는 그 시절부터 익숙해진 고기 먹는 습관이 내 입에 붙어버려서 채소만으로 꾸려진 밥상은 뭔가 빠진 듯하여 허전하기 이를 데 없어졌다. 최소한 바다 고기라도 한토막 얹어지지 않으면 성의 없는 밥상이라고 여겨진다.

몇 년 전, 교구 생태영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사님께서 우리가 시중에서 날마다 먹고 있는 '고기'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그 고기로 가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맛나게 먹고 있는 '햄', '소시지' 등은 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여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나 석면처럼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취급해야 하는 물질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검색창에 '세계보건기구 고기'라 쓰고 확인해 보시라.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우리농' 고기를 사서 먹는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논에서 나온 볏짚을 먹고 자란 '우리농' 소와 유기농 사료를 먹은 '우리농' 돼지고기를 먹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모든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하니, 여러 가지 정황상 나의 식습관은 이제 신학교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고기와의 이별이라...

망설이던 나에게 어느 채식주의자가 한 말이 용기를 주었다. "완전한 채식주의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0% 채식주의는 가능하다. 10%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울부짖고 있는 지구의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채식을 택하려 한다. 그러면 한 50% 채식주의는 될까?

우리농 생명공동체 www.wefarm.or.kr

강승수 요셉 신부 대전가톨릭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6. 교계제도(성직자)와 평신도 ① –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과 다양성

인간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 둘이다.(창세 1,27 참조) 이는 인간 자체가 애당초 관계적 존재며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무얼 하든 어디를 가든 인간이 지닌 이 본원적 관계성은 늘 따라다니고, 그 관계의 상태에 따라 인간은 행복도 불행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삶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그러면 교회 안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서로 행복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각자의 신원과 역할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 토대 위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자라날 테니. 이 장에서는 바로 그 교회 안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먼저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살펴보자.

하느님의 백성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양자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들 각각의 직무는 무엇인가? 물론 양자 모두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고, 실행할 임무가 있음은 이미 살핀 바이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행하는 데에 공동 부분과 고유 부분이 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하느님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의 직무 실행에서 **공동 부분**을 지니고 있음은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에 기초한다. 곧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을 직무와 은사와 봉사의 구분보다 앞서 다룬다: "하느님 백성은 하나뿐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다'(에페 4,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완덕의 소명도 같으며, 구원도 하나, 희망도 하나이며,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민족이나, 국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갈라 3,28 …)"(교회헌장 32항). 공의회에 따르면, **평신도도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전체교회를 위하여 책임을 나누어진다.**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성직자를 포함한 전체 하느님 백성의 과제이다.

다음으로 하느님 백성이 각기 **고유 부분**을 지니고 있음은 **하느님 백성의 평등성 안의 다양성**에 기초한다. 공의회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성덕을 닦도록 불리었고 하느님의 정의에 힘입어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 관리자나 목자로 세워졌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 주님께서 거룩한 교역자들과 나머지 하느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그 구별은 동시에 결합을 가져온다. … 교회의 목자들은 주님의 모범에 따라 서로 자기들과 다른 신자들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신자들도 목자들과 교사들에게 기꺼이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양성 안에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치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교회헌장 32항).

서명옥 로사 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교구 내 공소

당진성당 산성리공소

산성리공소는 박해를 피해 교우들이 정착하면서 신앙이 전해진 곳이다. 옛 마을인 염솔, 뒷박골, 우산, 삼상벌과 연관되어 있다.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뒷박골(1900년), 성산(1901년, 34명)공소는 퀴를리에 신부의 관할지였다. 현재의 공소건물은 시멘트벽돌조(대지면적247㎡, 건축면적84㎡)로 1982년 교우들의 노력봉사로 건축되었다. 교세로는 서산지역에 본당이 설정되던 1917년 47명의 교우가 있었고, 1967년에는 44세대 140명에 이르렀다. 1996년 돌마루공소 건립에 따라 인근 공소들이 통합되면서 산성리공소는 문을 닫았다. 현재 29가구에 25여 명이 돌마루공소로 정기적인 전례에 참석하고 있다.

"A-L-O-H-A~!!!"

'보살핌의 정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예비 간병인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칠판 위에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지침을 적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A → Ask
L → Listen
O → Observe
H → Help
A → Ask Again

ALOHA로 요약되는 이 지침이 바로 보살핌의 정석입니다. 하와이 인사말인 줄만 알았던 알로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음을 이해하며 이 '알로하'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 성찰해 봅니다.

Ask. 입으로만 묻는 것은 상대방의 입을 닫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상대방도 비로소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Listen. 답을 들으려면 귀만 있으면 되지만, 그 답을 이해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마음은 늘 실타래같이 얽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Observe. 관찰할 때는 침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침묵은 상대방과 나를 하나로 섞는 신비한 용해제입니다. 물에 꿀을 넣고 빠르고 요란하게 젓는다고 그 둘이 금방 하나로 섞이지 않습니다.

Help. 상대방을 돕기 어려운 이유를 만들 때에는 생각이 앞서지만, 상대방을 도울 때에는 손과 발이 먼저 바빠집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도움은 늘 생각에서만 머물 뿐입니다.

Ask Again. 되묻는 것은 혼란스러울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롭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올라 나무를 조금씩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끝없이 질문하며 누군가의 해로 떠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날, 하와이로 훌쩍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오늘은 작은 방 안에서 묵상하면서 '알로하'를 되뇌이며 행복한 여행을 떠나봐야겠습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맑은 날에도
가끔 비가 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 순간
잘 된다 생각하면
정말 잘 되어 갑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알아주면 됩니다.

알립니다

전담사목

카나혼인강좌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으로 진행
- 문의 :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가정사목부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 (초4-5, 부모)
- 때 : 8.22(주일) 10:00-15: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초등4-5학년, 부모(선착순 10팀)
- 참가비 : 2만원
- 주제 : 10대의 '성'을 말하다!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 문의 : (041)572-7179 / hapum7179@daum.net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 (중1-3)
- 때 : 8.29(주일) 13:00~17: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중1-3학년 (선착순 10명)
- 참가비 : 1만원
- 주제 : 우리들의 '성'이야기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 문의 : (041)572-7179 / hapum7179@daum.net

성체강복과 함께하는 기도회
- 때 · 곳 : 8.5(목) 19:30, 새얼센터
- 강사 : 성령쇄신봉사회 말씀봉사자
- 내용 : 성체강복, 말씀묵상, 미사 등
- 선착순 : 60명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2021년 성령쇄신 전국 대회 (강의 및 미사 치유기도)
- 때 : 10.9(토) 09:00~17:30
- 곳 : 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성당
- 미사 : 대전교구장 주교, 전국교구 담당 및 협력 사제단
- 주제 :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신청 후 참석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치유미사
- 때 · 곳 : 매주 화 14:00,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 등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정하상교육회관 일반관리직 직원 채용 공고
- 자격 : 영세 3년 이상, 경험자 우대
  (세종, 천안, 조치원 거주자 환영)
-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충원시까지)
- 문의 : 010-7423-1529

논산대건고 찾아가는 학교설명회
- 때 · 곳 : 8.28(토)
  09:00~12:00,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15:00~18:00, 운산 대철중학교
- 내용 : 교육과정, 입시전반, 생활기록부, 고입선택 시 고려할 사항 등
- 신청방법 : 논산대건고 홈페이지>입학홍보>입학안내 게시판
- 책자제작을 위해 사전신청 바람
- 문의 : (041)735-1968 입학홍보부 최지혜

영성강좌(원로사제들의 영성 나눔 시간)
- 내용 : 영성의 향기 3기
- 때 : 8.31~12.14(15주간) 매주 화 09:30~11:30
- 곳 : 유성갑동사제관 내 경당
- 대상 : 성인 신자 누구나 / 선착순 30명
-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갑동 사제관'
- 강사 : 김영교 신부, 박재만 신부, 강석준 신부

[온라인] 성서사십주간 심화과정 개강
- 역사서
  - 오전반 : 9.10(금) 10:00 / 저녁반 : 9.7(화) 20:00
- 사도행전, 서간, 요한묵시록
  - 오전반 : 9.8(수) 10:00 / 저녁반 : 9.6(월) 20:00
- 대상 : 성서사십주간 1번 이상 수료한 신자
- 신청 · 문의 : 대전가톨릭성서모임
  010-8933-9458, 010-4628-4250
- 수강료 : 과목당 3만원 / 교재비 별도
- 입금 : 하나은행 117-910563-53407 이애리
- 입금 확인 후 수강 신청과 승인됨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비밀, 무료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정법률 그 외 기타(심리검사)
- 상담방법 : 전화, 면접, 서신(Fax 포함)
  E-mail : domestic-vcc@hanmail.net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Fax 636-2035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상담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온라인반〉9.2(목)~2월 말(매주 목 14:00)
- 누구나 폰으로 수강가능
-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기도
- 회비 15만원 / 마리아학교 010-9620-4820
- 입금 :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제주도 관광안내
-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성지 안내 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 문의 : (064)758-6476, 010-4566-6476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 전례초조각, 캘리그라피, 가곡/성가, 영화와 말씀피정, 성경공부
- 전례초연구소 수강생모집(초 · 중 · 고급 · 강사반)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논산 씨튼영성의집 관리직원 모집
- 분야 : 내 · 외부관리직원 1명
- 문의 : (041)733-2992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쎌)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8.7(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제주성지순례 3일/4일** 8.27~29, 9.9~12, 9.24~26, 10.1~3 한국성지167 완주/부산.마산교구4일(8.23~26)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타임월드네거리 (042)482-3601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 서울아산병원 출신 황인석 대표원장, 김경훈(요한)원장, 강재환(필립보)원장 외 5명 협진 (042)489-8888 대전 서구 둔산남로107	**맑은눈 안과** 라식,라섹,노안,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한국공간정리협회 (오마이홈) 신박한 집정리 전문 서비스 신진경 세실리아 T.1522-4123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수도회 및 피정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 때 : 매월 둘째 주일 13:00, 대전 목동 수도원
- 문의 : 010-6608-3217

2021년 2학기 우리성서모임
- 강의 내용(요일) – 역사서(화) / 시서와 지혜서(수) / 요한복음과 서간(목)
- 시간 – 오전반 10:00~11:30, 저녁반 19:30~21:00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2층 우리성서모임 (대전 성모여고 내)
- 개강 – 9월 첫째 주간
- 문의 : 010-2985-9020 우리성서모임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수녀)
- 1박 2일 : 8.21(토)~22(주일), 9.11(토)~12(주일)
- 3박 4일 : 8.26(목)~29(주일), 10.1(금)~4(월)
- 8박 9일 : 9.1(수)~9(목), 10.12(화)~20(수)
- 40일 : 9.24(금)~11.2(화)
- 신청 : 010-4906-5722, (031)953-6932
- 곳 :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도회수사들과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 성지순례피정 : 8.30~9.2, 9.6~9, 9.12~15, 9.25~28, 10.2~5, 10.15~18
- 자연순례피정 : 10.8~10, 10.21~23
- 접수 : (02)773-1463, (064)756-6009

교구 말씀사목부 '마태오복음 성경공부' 개강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 활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영적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구에 신설된 말씀사목부가 여러분 삶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말씀사목부에서는 마태오복음(1년), 루카복음(6개월), 요한복음(1년)이라는 단계적인 공부 과정을 계획하였고, 이때 복음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서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구약의 배경과 연관 지어 원천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과 세종 ·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인 말씀 식탁에 초대합니다.

세종 · 공주지역
· 저녁반 : 9.2(목) 시작, 매주 목 20:00~21:30 / 낮반 : 9.3(금) 시작, 매주 금 10:00~11:30
· 곳 : 대전교구청(세종시 국책연구원5로 12) 명례방

대전지역
· 낮반 : 9.7(화) 시작, 매주 화 10:00~11:3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대강당

- 강사 : 이재훈 신부(말씀사목 전담) • 수강료 : 120,000원(1년 과정), 교재비 별도
- 신청 : 8.16(월)까지, (044)270-3074, http://naver.me/xM24AOtw

QR코드 (신청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성지와 성당

성지	솔뫼성지, 성거산성지, 진산성지, 청양다락골성지, 도앙골성지, 삽티성지, 해미국제성지, 홍주순교성지, 황새바위순교성지
성당	강경성당, 궁동성당, 서산예천동성당, 선화동성당, 세종 성프란치스코성당, 신합덕성당, 용전동성당, 직산성당, 천안원성동성당, 판암동성당, 천안쌍용동성당
해외 성당	브라질 상파울루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미국 리치몬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미국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QR코드를 스캔하면 희년 전대사 수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킴벨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율리오	이안과병원 전문분야별 7인진료 T. (042)220-5500	베타니아 성물센터 흔배 · 묵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월-금 09~18:00 / 토 14:00~18:00 국내외성물 T. (042)226-8980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042)532-7009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감사미사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감사미사'가 7월 20일(화) 대전교구장 직무대행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주례,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대전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성당에서 봉헌됐다.

주교단은 감사미사를 통해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로 유흥식 대주교가 성성(聖省)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또한, 이날 미사 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교구 솔뫼성지에 신축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Memoria et Spes) 성당 축복식도 거행됐다.

해미국제성지순례길 고덕성당 편

7월 31일(토) 12:00

해미국제성지순례길(5) – 고덕성당 편이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로 오픈됩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을 통한 수입은 '백신나눔운동'에 쓰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소

조용히 자라는 숲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국에서 일하는 윤영중 필립보 신부입니다.
지난 5월경 홍보국의 초대에 겁도 없이 응답하고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주보에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솔직히 약간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소국에 있으면서 성소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교구 주보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성소국으로 불리움을 받은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꽤 긴 시간 교구 주보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실은 무엇을 어떻게 매주 쓸 것인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소국 이야기, 사는 이야기, 묵상 등 어쩌면 조금은 흐트러진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영중 필립보 신부 성소국장